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소개해달라. 독일의 뮌헨과 베를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만의 타이베이에 총 5개 지사를 두고 있다. '실현 가능한 꿈(Tangible Dream)'을 슬로건으로 전자 제품, 운송 기기, 산업 기계, 의료 기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 결과물이 '레더링(redering)'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디자이너들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 결과물을 시제품, 혹은 양산품의 형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직위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기회도 장점이다. 또한 디자인 과정에서는 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실제 경험이 중요하네, 한국에서는 인터넷 리서치로만 해결하던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

해외에서 디자이너로 살아가며 겪은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6개월의 인턴십 기회를 잡고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뮌헨 땅을 밟았다. 비자 발급을 위해 회사 담당자와 함께 뮌헨의 외국인청을 찾아



양성철

독일, 뮌헨

파일럿피쉬(Pilotfish) 뮌헨 오피스 시니어 디자이너.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과 석사.
sungchul.yang@pilotfish.eu

7년 차 산업 디자이너.
글로벌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 파일럿 피쉬에서 산업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에 매력을 느껴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고, 독일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다.

대표작
인포게이트(InfoGate), 2010~2011.
뮌헨 공항 이용객을 위한 인포메이션 키오스크 디자인.

갔는데, 경력자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취소됐다. 당시 회사에서도 아시아계 직원을 채용한 적이 처음이었기에 이런 문제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일주일 동안 총 다섯 번을 내리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부모님께는 모든 게 잘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 독일 노동청에 '한국의 직장을 포기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 12시간을 날아 독일에 온 이 불쌍한 청년의 사정을 봐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해외에서 디자이너로 살아가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인턴십을 마치고 정직원 계약을 했을 때(한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다), 그리고 2년 전 팀장으로 승진했을 때다.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느낌이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동료나 후배에게 조언을 한다면? 외국 생활은 생각했던 것처럼 환상적일 수도, 또 별로일 수도 있다. 실제 어떻게든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 도전과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